

2001년도

제2차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 참관기

도착하던 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라오스는 어두웠다. 밤구렁이라도 만날 듯한 어둠 속에 반딧불 몇개... 숙소로 마중나온 테오다토 박사와 한나스트랑가드의 환영은 이번 열흘간의 라오스 방문 일정이 원활할 것임을 예고하여 주었다.

임한중 고문을 비롯한 건강관리협회 대원이 활동한 지난 2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계보건기구(WHO) 라오스 대표부가 우리 팀을 맞는 진지한 태도에서 읽을 수 있었다.

WHO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한지 2년여, 이미 라오스 기생충 관리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니 이들도 한국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였음에 틀림없었다. 우리 나라보다 넓은 면적의 라오스, 이미 중남부지역 기생충 감염률을 이 짧은 기간 동안 파악한 것이다.

입국 둘째날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라오스대표부는 이 나라 기생충 퇴치사업의 본산임을 그들의 현황보고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한-라오스 협력사업과도 발맞추어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만화와 게임을 소개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중에 스스로 위생관념을 깨우치도록 주의 깊게 만들어진 질병퇴치 프로그램이었고, 이들은 앞으로의 성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 37년간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우리 나라와 70년



▲ 시엠멘 초등학교에서 현지학생 1, 2학년의 요충검사와 5, 6학년의 혈색소 검사를 마치고 교직원들과 기념촬영.

대 초 일본에서 원조 받은 현미경 300대를 생각해 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라오스를 돕고 있다는 점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준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한정된 재원을 기초로 활동하되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활동 방식으로 이들을 돕고 있

으니 민간외교의 본보기가 아니고 무엇일까? 임한중 고문의 말씀대로 한국은 한국식으로 이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일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생충을 어떻게 퇴치해야 하는지 체험토록 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한국식 작업방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원래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시작한 한-라오스 기생충교류사업 5개년 계획 중 2년이 경과한 지금, 이들의 뇌리에는 한국의 활동을 인상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초청만찬에서 나타내었다.

사기 추천한 대원들이 향한 현지 작업장소는 라오스 북부 루앙프라방이었다. 황의혁, 서민호, 한성운, 정문휴 대원과 필자는 라오스에 지원된 한국산 짐차를 타고 여덟시간 달려서,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비행기로 나누어 출발했다.

메콩강과 남칸 물줄기의 합수머리에 위치한 이 유서 깊은 도시는 한국의 고도 경주라고나 할까? 그들의 불교 문화는 새벽의 경건한 길거리 시주 모습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현지까지 왕복하는 기간을 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박5일... 그 기간 안에 루앙프라방, 오돗사이, 사야부리 3개성에서 수집한 오천칠백 표본의 검변을 마쳐야 했다.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전 대원은 긴장하였다.

현미경에 가득히 깔리는 회충란으로 보아 감염량이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모든 재료의 감염강도를 측정기로 한 방침에 비추어 이것은 매일 밤을 새워도 마칠 수 없는 작업량이었다.

정신없이 최선을 다하여 밤낮을 함께한 대원들이 현지 연구소 직원들과 힘을 합쳐 마침내 완성한 데이터는 5,751명을 대상으로 3개 지방 평균 75% (54,2-89,7%)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염되었고, 이중 루앙프라방 지방은 회충감염률이 90.8%에 달하였으며, 이외에도 구충, 간흡충, 편충, 테니아조충, 요충 등의 기생충란을 관찰함으로써 특히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감염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초등학생의 75%가 기생충 감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강건너 시엥멘 마을에서는 어땠는가? 본보기로 검사한 시엥멘 초등학교 1,2학년 100여명 어린학생 중 30여 %가 요충에 감염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실상을 취재하기 위하여 동행한 김경호, 신성식 일간지 기자가 바빠졌고, 현지 실태 파악을 위한 유근혁 복지부 서기관과 이들을 안내한 윤청하 국장 또한 같이 분주했다. 필경 이들의 뇌리에도 현지 감염상이 깊이 각인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루앙프라방에서의 마지막 밤, 시소관 소장이 직접 준비한 야식은 대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시 비엔티안으로 돌아왔다. 라오스 보건부장관과

보건국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28일 건협은 알벤다졸 등 구충약 13만 여정과 항생제, 일반 의약품, 냉장고 등 연구기자재를 무상 기증하였다.

이 자리에서 달라로이 보건성장관은 한국의 지원이 라오스 기생충 퇴치사업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한국의 의료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루앙프라방에서 치료하여 수집한 4종의 기생충 표본까지 현지에서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앞으로 전국적인 기생충 퇴치사업의 자급제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엔티안에 돌아온 대원들은 약간 지쳐 있었지만 라오스주재 장철균 한국대사가 베푼 만찬으로 대원들은 오랫동안에 맛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제협력단 유사선 과장이 참석하여 한-라오스 협력사업의 여러가지 현황문제를 곁들였다.

특히 대사관에서의 측

면지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국제협력단의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 등등 중요한 의견이 오갔으며, 라오스 국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 시간이 되었다.

이제 2002년부터는 입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치료만이 아닌 다각적 접근 즉 풍토병의 원인을 탐색하여 근본적인 기생충 퇴치사업에 일층 박차를 가할 예정에 있는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웅변하고 있으며, 한국학자의 세계화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의료사업을 통한 민간외교의 본보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라오스 관계자의 한국 내 초청연수에 의한 인력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떠나오던 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라오스의 낮 풍경은 아름다웠다. 능구렁이 황토빛 메콩강이 멀리 멀리까지 따라오다 마침내 사라졌다. 

엄기선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두충류 및 회충, 십이지장충 감염 학생들로부터 구충한 기생충을 샘플로 한 감염 학생들의 모습.